

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, 체코 피알라 총리와 통화

-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.8.(수) 페트르 피알라(Petr Fiala) 체코 총리와 통화를 갖고,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에 의견을 교환했다.
 -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체코 주요 인사들이 우리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,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경제,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,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.
 - 또한, 최 권한대행은 양국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인 올해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간 주요 협력 사업 및 고위급 교류 등 주요 외교 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.
- 피알라 총리는 체코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고, 최 권한대행이 언급하였듯이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 강화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.
- 한편, 최 권한대행 및 피알라 총리는 양국이 원전 협력에 이어 첨단산업, 과학기술, 경제·금융 등 전방위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구체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	책임자	과 장 이재완 (044-215-7610)
		담당자	서기관 김미진 (044-215-7611)
		담당자	사무관 정찬구 (044-215-7614)
	외교부 중유럽과	책임자	과 장 이은옥 (02-2100-7457)
		담당자	서기관 이충만 (02-2100-8319)